

2022년
5월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개업 10주년

2012년 5월 22일 개업 이래 도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으며 634m라는 세계 제일의 높이를 자랑하는 자립식 전파탑으로도 주목을 받아온 도쿄 스카이트리. 2021년 10월에는 상업 시설 '도쿄 소라마치'와 수족관, 플라네타륨 등이 있는 대형 복합 시설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의 방문객이 3억 명을 돌파했다. 올해 2022년은 개업 10주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을 진행 중이다.

📍 오시아게 '스카이트리마에'역(지하철, 게이세이),
도쿄 스카이트리역(도부)

www.tokyo-skytree.jp/kr



©TOKYO-SKYTREETOWN

2022년
3월 창립150주년을 맞이하는
도쿄국립박물관

우에노 공원 안에 위치, 1872년에 창립한 일본에서 가장 역사 깊은 박물관인 도쿄국립박물관이 올해 2022년에 150주년을 맞이한다. 국보 89점을 포함하여 소장 작품은 12만 점에 달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고미술과 고고 유물 등을 폭넓게 전시하고 있다. 150주년을 맞이하여 귀중한 문화재의 매력과 박물관을 찾는 즐거움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도쿄국립박물관 창립 150주년 기념 특별전 '국보 도쿄국립박물관의 모든 것'을 2022년 10월18일~12월11일까지 개최 예정. 이밖에도 다양한 특별 전시와 행사가 기획되어 있다.

📍 우에노역(JR, 지하철, 게이세이)

www.tnm.jp/150th/en

2022년
4월 가메이도에 새로운 상업 시설
'KAMEIDO CLOCK(가메이도 클락)'을 오픈

아키하바라역에서 JR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도쿄의 다운타운 가메이도. 가메이도역 앞의 새로운 중심 상업 시설 'KAMEIDO CLOCK'이 4월에 오픈 예정. 인기 브랜드 '유니클로'와 'GU'가 동시 출점되며 대기업 가전점 '고지마×빅카메라', 대형 서점 'TSUTAYA BOOKSOTRE' 등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전문점 136곳이 출점한다. 또한 지역의 유명 가게와 인기 가게가 모이는 '가메쿠로 요코초'에서 가볍게 식사와 술도 즐길 수 있다.

📍 가메이도역 (JR) www.kameidoclock.jp



도쿄 목욕탕 (센토)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공중 목욕탕.

현재 도쿄엔 무려 500군데 가까운 목욕탕이 있고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이번 회에선 도쿄도가 정한 입욕료 480엔(성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민적인 목욕탕을 픽업! 지역 주민들과 섞여서 도쿄의 목욕 문화를 체험해 보자.

※2022년 1월 기준 요금. 사우나 등의 서비스 이용시 별도 비용 지불

※영업시간, 정기 휴일 등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다이코쿠유

OSHIAGE 1

도쿄 스카이트리 밑에 펼쳐지는 서민적인 거리에는 1949년 창업한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옛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넓은 노천탕이 있어 옛것에 새것을 더한 친숙함이 인가다. 2층에는 개방적인 우드데크가 있어 흔들리는 그물 침대에 누워서 스카이트리를 올려다 볼 수 있다. 다이코쿠유 오리지널 티셔츠와 마스크트 캐릭터 '오케이누'의 굿즈 등 개성적인 아이템도 기념품으로 좋다.

♨ 사우나 있음

🚶 오시아게 '스카이트리마에'역(지하철, 게이세이),
도쿄 스카이트리역(도부)

www.daikokuyu.com/english



고가네유

KINSHICHO 2

세련된 카페같은 분위기의 목욕탕. 카운터가 그대로 비어바가 되어 목욕 후에는 맛있는 오리지널 고가네유 맥주를 즐길 수 있다. DJ 부스도 있고, 정기적으로 이벤트도 열리므로 목욕탕을 새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이코쿠유'의 자매점으로도 알려져 있다.

♨ 사우나 있음

🚶 긴시초역(JR, 지하철)

koganeyu.com



쓰바메유

OKACHIMACHI 3

우에노 공원에서 가까운 오카치마치 지역의 목욕탕이다. 건물은 도내에서 유일한 나라의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곳이다. 목욕물 온도는 46°C로 약간 뜨겁다. 뜨거운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성격 급한 '에돗코(도쿄 토박이)' '스타일을 계승했다고 한다. 새벽 6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므로 뜨거운 물로 잠을 깨워 산뜻한 기분으로 외출해 보자.

♨ 사우나 없음 🚶 오카치마치역(JR)

www.1010.or.jp/map/item/item-cnt-82



히다마리노이즈미 하기노유

UGUISUDANI 4

목욕탕 중에서도 도내 최대급의 크기를 자랑하며 1층부터 4층까지 대욕탕, 사우나, 음식점 등이 있다. 날마다 바뀌는 약탕, 월풀 욕조, 전기탕, 탄산탕, 노천탕 그리고 사우나와 냉탕 등 여러 종류의 욕탕이 설비되어 있다. 스파 목욕탕처럼 느긋하게 즐길 수 있으므로 가성비가 좋아서 목욕탕 팬들 사이에서 인가다.

♨ 사우나 있음 🚶 우구이스다니역(JR)

haginoyu.jp



후쿠노유

HONKOMAGOME 5

역사 깊은 절과 신사가 산재한 센다기에 있는 목욕탕으로 일본스럽고 개성적인 입구가 눈길을 끈다.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호화로우며 배경화는 선명한 후지산이, 목욕탕 칸막이 벽에는 금전운과 예능을 주관하는 신 벤자이텐이 그려져 있다. 목욕탕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는 기분이 든다. 벽을 향해 있지 않고 중앙에 있는 욕각형 형태의 몸을 씻는 곳도 신기했다.

♨ 사우나 없음 🚶 혼코마고메역(지하철)

www.sentou-bunkyo.com/pg65.html





목욕탕에 그려진 벽화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인기 소재인 후지산은 물론, 저마다 개성 넘치는 다양한 벽화를 눈여겨 보자.

히사마쓰유

SAKURADAI

6

뮤지엄 같은 세련된 외관이 특징인 대표적 ‘진화형 목욕탕’. ‘빛과 바람, 잡목림 속에서의 목욕’을 테마로 하여 내부 시설에선 나무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목욕탕도 태양빛이 가득 들어온다. 밤에는 목욕탕에서 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한 빛의 연출이 있어 분위기도 확 바뀐다. 지하 1,500m에서 끌어온 천연 온천의 노천탕이 인기다.

사우나 있음
 사쿠라다이역(세부)
www.hisamatsuyu.jp



하스누마 온천

HASUNUMA

7

도쿄에서 가장 목욕탕이 많은 오타구에 있으며 원천 100%의 온천을 사용하는 목욕탕이다. 특징이라 하면 호화로운 내부 인테리어다. 2017년 다이쇼 로망을 컨셉으로 리뉴얼했다. 로비와 탈의실은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며 목욕탕에는 장대한 산과 계곡의 타일 그림이 있다. 몸을 씻는 곳에는 선명한 일본화가 그려져 있으므로 주목해 보자.

사우나 있음
 하스누마역(도큐)
www.1010.or.jp/map/item/item-cnt-448



유통부리 사카에유

MINOWA

8

서민적인 정취가 남아 있는 이 지역에서 90년 가까이 사랑받아온 목욕탕. 천연 노천 온천을 비롯해 8종류의 욕탕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온천은 지하 100m에서 솟는 천연 온천의 초연수로 물이 부드럽고 피부가 매끈매끈 해진다고 한다. 목욕탕에서는 드물게 15분마다 오토로일리(사우나에 있는 돌에 아로마 물을 뿌려 뜨거운 증기를 발생시키는 입욕법)와 함께 때에 따라서는 넷파시(뜨거운 증기를 만들어 내는 전문가)가 타올로 부채질하여 증기를 확산시키는 아유프구스 입욕법을 즐길 수 있어 사우나 팬들에게 인기가 있다.

사우나 있음
 미노와역(지하철) sakaeyu.com



도쿄요쿠조

NISHIKOYAMA

9

2020년에 리뉴얼 오픈. IT기업에서 이직한 20대 초반의 목욕탕 덕후 점장이 화제가 되었다. 니시코야마역에서 도보 1분인 고급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친숙한 분위기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일인용 오키모리 사우나와 7000권의 만화, 그림책이 꽂혀 있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 등 새로운 감각이 돋보이는 시설이다.

사우나 있음
 니시코야마역(도큐)
shinagawa1010.jp/list/tokyo_b



알아두면 좋은 목욕탕 매너

모두가 기분 좋게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

예를 들면

- 탕 속에 들어가기 전 몸 씻기
- 물에 타올 넣지 않기
- 미끄러운 목욕탕에서 뛰지 않기 등.



목욕탕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QR코드에서 확인.



꽃놀이에 가져가고 싶은 추천 디저트

매년 도쿄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걸쳐 거리가 벚꽃으로 물든다. 벚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가능한 특별한 디저트를 소개한다.

fruits and season

fruitsandseason.com

크고 반짝거리는 단면이 인상적인 비건 후르츠 샌드위치 전문점. 유제품과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두유를 베이스로 한 크림과 빵을 사용. 통째로 들어간 과일의 단맛과 풍부한 과즙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에비스역(JR, 지하철)



오스미 다마야 본점

www.oosumi-tamaya.co.jp

봄을 대표하는 화과자와 이치고마메 다이후쿠의 원조라 불리는 가게. 1985년 새롭게 고안된 화과자로서 새콤달콤한 딸기와 떡의 궁합이 좋아 눈감찰할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다. 본점에서 구입하여 신주쿠 교엔에서 벚꽃놀이를 하며 먹어 보자.

아케보노바시역(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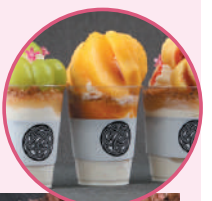


긴자 세이카도

seikadou.jp

대표 상품은 고급 과일을 사용한 신감각 도라야키. 개발에 4개월이나 걸린 쫄쫄깃한 얇은 생지에 딸기와 망고 등 일본 전국에서 엄선된 제철 과일과 생크림, 유기농 팔소와 백팔알을 끼워 넣었다. 겉보기도 예뻐서 인기가 높다.

긴자역(지하철)



피카츄 디저트 by 포켓몬 카페

www.pokemoncenter-online.com/cafe/pikachu_sweets

이케부쿠로의 선사인시티에 있는 테이크아웃숍. 케이크와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먹기 아까울 정도로 귀여운 포켓몬 디저트와 드링크가 한가득. 이케부쿠로역 주변에는 벚꽃을 볼 수 있는 공원이 많아 귀여운 디저트를 한 손에 들고 가보는 것도 좋다.

히가시이케부쿠로역(지하철)



아사쿠사 다이쇼 로망관 카페

www.instagram.com/romankan_cafe

서양식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화제의 디저트 가게. 키친 스텝의 유니폼도 레트로 느낌이 나며 레트로한 찻집 메뉴가 갖추어져 있다. 인기 메뉴는 '비다마(구슬) 후르츠 펀치'. 빛에 비추면 반짝이는 예쁘고 컬러풀한 후르츠 젤리는 벚꽃과 함께 사진에 남기고 싶다.

아사쿠사역(지하철, 도부, 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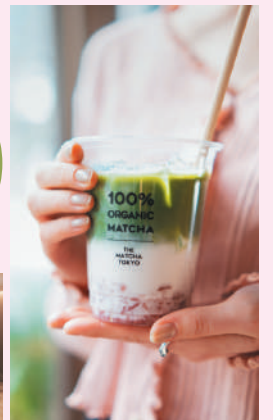


THE MATCHA TOKYO

www.the-matcha.tokyo/pages/english

건강한 식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말차. 안심, 안전한 맛있는 유기농 말차만을 고집하는 전문점. MIYASHITA PARK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선 스텝이 말차를 달여 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디저트와 말차 드링크를 손에 들고 꽃놀이에 가 보자.

시부야역(JR, 지하철, 게이오, 도큐)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GO TOKYO

www.gotokyo.org/kr/



편집후기

3월의 히나마쓰리는 여자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일본의 전통 축제다. '모모노셋쿠(삼진날)'라고도 하며 히나 인형을 장식하고 지라시즈시와 하마구리(대합) 국물 요리, 히시모치 등으로 축하 식사를 한다. 매년 히나 인형을 장식하는 이벤트가 열리는 호텔에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